

##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요인

조유향<sup>1)</sup>, 정영해<sup>2)</sup>  
초당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동신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Yoo Hyang Cho<sup>1)</sup>, Younghae Chung<sup>2)</sup>  
*Chodang University<sup>1)</sup>, Dongshin University<sup>2)</sup>*

=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measures nursing students' ability to recognize child abuse and identifies the factors related to varying levels of recognition.

**Methods:**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70 third and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during November 15-30, 2011. The measuring tool for child abuse recognition used in the study was developed by Ozasa (2011) and is composed of 44 items including physical, mental, and sexual abuse, and neglect.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wo sample t-test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valuated with the SPSS/PC ver20.0 program.

**Results:** Nursing students were concerned about child abuse(85.4%), but knew little abou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14.3%), and they had almost no formal education or training regarding how to recognize child abuse. They only 1.6% reported child abuse even if they encountered such incidents; however, they correctly recognized even infrequent incidents of child abuse. Recognition of sexual abuse ranked highest, while recognition of neglect ranked lowes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concern over child abuse showed higher recognition scores.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hysical abuse, mental abuse, and neglect had different related factors, while sexual abuse had none.

**Conclusion:**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subject of child abuse is strongly recommended in nursing curriculums so that nurses will be abl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and report suspected child abuse.

**Key words:** Child abuse, Nursing student, Child abuse recognition

---

\* 접수일(2013년 2월 28일), 수정일(2013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2013년 5월 6일)

\* Corresponding author: 정영해,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Younghae Chung, Naju-shi Gunjae-Ro 185, Dongshin University, Jeonnam, Republic of Korea  
Fax: +82-61-330-3580, E-mail: aggiec@hanmail.net

##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이다. 십년이 지난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4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1],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HO 아동학대 실태(2010)를 보면, 매년 15세 미만 아동 31,000명이 학대로 사망에 이르며, 여아의 20%, 남아의 5%~10%가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전체 아동의 25%~50%가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미국은 해마다 3백만명이 아동학대로 보고되고 있다[3].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2001년 아동학대 발생률(아동 1만명당 아동학대율)이 1.81이었고, 2005년에는 4.18로 증가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및 중복학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36.9%, 다음으로 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가 9.1%, 성학대 4.4%, 유기 3.2%로 나타났다[4]. 그리고 2001년-2008년간 전국의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약 2.3배, 학대 피해 아동보호 건수는 약 2.6배 각각 증가하였다[5].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35.3%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자들은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의무

자의 신고율은 매년 전체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인의 신고율은 지극히 저조한 2%~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특히 간호사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과정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아동학대 관련 준비정도, 신고하는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자원 활용방법에 대한 자신감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8]. 이처럼 간호사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예방 및 사후대처를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간호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나[9], 아직도 관심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10].

국내 아동학대 동향에 대한 연구[11]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신문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 이후에 많이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연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ng[12]은 이처럼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식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학과 관련된 연구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 낮고, 신고의도도 낮은 편으로 많은 노력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7]. 이외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연구[13,14] 특수학교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15],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16,17]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18]가 있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 연수가 인식과 신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대응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Kim과 Cho[19]가 수행한 연구가 전부로 간호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학대 피해경험 및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관한 것으로, 간호학생으로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 태도와 이들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관심과 신고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신고경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간호대학생의 특성별 아동학대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셋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관련요인을 검토한다.

## 대상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아동학대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인식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임의로 선정된 2개 대학 간호대학생으로서, 두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이다.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에 실시되었다. 최종 응답자 수는 총 376명으로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대상자 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한 대상자수는 370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과 간호대학생 특성별 아동학대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였다.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표본 t-검정에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에서 119명이 필요하였으며, 학생특성별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t-검정에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에서 군당 86명씩, 총 17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크기는 충분하였다.

조사는 응답자 기입식 집단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의 학생이므로 취약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문조사원 2명이 조사하게 하였다. 전문조사원이 연구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한 뒤 자료수집을 하게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설문 응답지는 따로 수거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부속병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승인번호, DSGOH-009).

### 3. 연구도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20],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일컫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말로 된 적절한 도구를 찾을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Ozasa[10]의 아동학대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표는 번역한 뒤 간호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수정, 보완하고, 국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모두 44항목이며, 신체학대 9문항, 방임 13문항, 성적 학대 9문항 및 심리적 학대 13문항으로 4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 결과 방임에서 1문항, 성적 학대에서 1문항의 로딩이 낮고, 우리문화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모두 4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0점~4점 척도로,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0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대는 아니다’ 1점, ‘빈번하게 일어나면 학대라고 생각한다’가 2점, ‘가끔 일어나도 학대라고 생각한다’가 3점, ‘단 한번이라도 하면 학대라고 생각한다’가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라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Ozasa연구[10]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0.93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가 0.94였고, 하부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신체학대 0.79, 방임 0.89, 성적 학대 0.74, 심리적 학대 0.93이었다.

4. 자료 분석

아동학대 인식 관련요인으로는, 기본특성에 성, 연령(학년)이 포함되며, 평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아동학대 신고경험의 유무, 아동학대라고 의심될 때 관심 여부, 관련 강의/훈련 유무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였으며, 관련요인 특성 별 아동학대 인식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관련 요인 파악은 후진제거방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나, 0.05<p<0.10인 경우 ‘경향(tendency)’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간호대학생의 특성

조사대상 간호대학생은 3학년이 4학년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남학생은 약 11.1%를 차지하였다 (Table 2). 졸업 후 진로계획은 85.0% 이상이 임상간호사를 꼽았다(Table 1).

Table 1. Child abuse related characteristics by year (n=370)

Characteristics		All	3rd year	4th year	$\chi^2$ (p)
		n (%)	n (%)	n (%)	
Total		370(100.0)	212 (57.3)	158 (42.7)	-
Awareness of child abuse	Yes	316 (85.4)	172 (81.1)	144 (91.1)	7.27 (0.007)
	No	54 (14.6)	40 (18.9)	14 ( 8.9)	
Training regarding child abuse	Yes	73 (19.7)	33 (10.8)	50 (31.6)	24.72 (0.001)
	No	297 (80.3)	189 (89.2)	108 (68.4)	
Knowledge of child welfare laws	Yes	53 (14.3)	19 ( 9.1)	34 (21.5)	11.63 (0.001)
	No	317 (85.7)	193 (91.0)	124 (78.5)	
Ever reported child abuse	Yes	6 ( 1.6)	4 ( 1.9)	2 ( 1.3)	(0.999)*
	No	364 (98.4)	208 (98.1)	156 (98.7)	
Concern for child abuse victim	Yes	131 (35.4)	69 (32.5)	62 (39.2)	1.77 (0.183)
	No	239 (64.6)	143 (67.5)	96 (60.8)	

\* From Fisher's exact test.

Table 2. Recognition of child abuse by general and related characteristics (70)

Characteristics		n (%)	Mean±SD	t (p)
Total		370(100.0)	3.02±0.486	-
Year	3rd year	212 (57.3)	3.01±0.506	-0.433 (0.665)
	4th year	158 (42.7)	3.03±0.459	
Sex	Male	41 (11.1)	3.10±0.486	1.170 (0.248)
	Female	329 (88.9)	3.01±0.476	
Post-college career	Hospitals & clinics	315 (85.1)	3.00±0.492	-1.600 (0.111)
	Other	55 (14.9)	3.12±0.442	
Awareness of child abuse	Yes	316 (85.4)	3.04±0.474	2.001 (0.046)
	No	54 (14.6)	2.90±0.542	
Training regarding child abuse	Yes	73 (19.7)	3.06±0.519	0.744 (0.457)
	No	297 (80.3)	3.01±0.478	
Knowledge of child welfare laws	Yes	53 (14.3)	2.98±0.480	-0.629 (0.530)
	No	317 (85.7)	3.03±0.488	
Documentation of child abuse	Yes	6 ( 1.6)	3.08±0.509	0.286 (0.775)
	No	364 (98.4)	3.02±0.486	
Concern for child abuse victim	Yes	131 (35.4)	3.11±0.452	2.722 (0.007)
	No	239 (64.6)	2.97±0.497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5.4%를 차지하였으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80.3%가 없었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85.7%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간호학생들 중 1.6%만이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본인이나 친구가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의심 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

전체의 85.4%가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나, 높은 학년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p<0.01$ ). 아동학대에 대한 수업을 듣거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9.7%로 나타났는데, 4학년은 31.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001$ ). 아동복지법을 알고 있다는 학생의 비율도 4학년에 유의하게( $p<0.001$ )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분석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수업/연수 경험이 있다고 모두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수업/연수가 아동복지법에 대한 인지여부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 4학년 모두 35.4%가 되었으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학대 관련 특성과 아동학대 인식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4점 만점에 3.02점을 받아, '가끔'이라도 일어나면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었다(Table 2).

아동학대 인식은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는 경우( $p<0.05$ )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은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아동학대 인식은 간호대학생의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특성, 즉, 연수 여부나 아동복지법 인지, 아동학대 신고경험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학대 관련 특성과 하부 영역별 인식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 영역 중 성적 학대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학대, 신체학대, 방임 순으로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었다(Table 3). 즉, 성적 학대는 '한번'만 일어나도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평균 3.60)이었지만, 신체학대나 방임은 '한번 또는 가끔' 일어나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둘 다 평균 2.82)이었다.

관련 요인 중에서는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신체학대 인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역시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연수여부나 아동복지법 인지여부, 아동학대 신고경험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동학대 하부영역 중 방임에 대한 인식은 평균 2.82점으로 신체학대와 더불어 가장 낮았다. 방임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p<0.05$ )과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을 가진 학생들( $p<0.05$ )에게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수여부나 아동복지법 인지, 아동학대 신고경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이나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들의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평균은 3.60점으로, 매우 높았다. 졸업 후 진로계획이 임상간호사가 아닌 학생들의 인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학년이나 성별, 기타 아동학대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학대 인식은 평균 2.98점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특성 중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던 학생들의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학년이나 성별,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동학대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Recognition of child abuse by general and related characteristics by sub-domain (n=370)

Characteristics	Physical abuse		Neglect		Sexual abuse		Mental abuse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Total	2.82±0.526		2.82±0.639		3.60±0.451		2.98±0.676	
Year								
3rd year	2.83±0.534	0.261 (0.794)	2.82±0.648	-0.275 (0.784)	3.58±0.479	-1.109 (0.278)	2.96±0.704	-0.460 (0.646)
4th year	2.82±0.516		2.83±0.628		3.63±0.410		3.00±0.639	
Sex								
Male	2.77±0.620	-0.606 (0.547)	3.00±0.576	1.917 (0.056)	3.67±0.452	1.040 (0.299)	3.08±0.715	1.000 (0.318)
Female	2.83±0.513		2.80±0.644		3.59±0.451		2.97±0.671	
Post-college career								
Hospitals & clinics	2.81±0.529	-0.899 (0.369)	2.81±0.644	-1.239 (0.216)	3.58±0.461	-1.771 (0.077)	2.96±0.678	-1.418 (0.157)
Other	2.88±0.508		2.92±0.604		3.70±0.377		3.10±0.660	
Awareness of child abuse								
Yes	2.84±0.509	1.795 (0.074)	2.85±0.627	2.204 (0.028)	3.61±0.434	1.415 (0.158)	2.99±0.662	1.175 (0.241)
No	2.71±0.607		2.65±0.682		3.52±0.536		2.88±0.753	
Training regarding Child abuse								
Yes	2.90±0.549	1.455 (0.146)	2.89±0.745	0.830 (0.409)	3.59±0.421	-0.094 (0.925)	2.99±0.679	0.171 (0.865)
No	2.80±0.519		2.81±0.611		3.60±0.459		2.97±0.677	
Knowledge of child welfare laws								
Yes	2.80±0.575	-0.315 (0.753)	2.79±0.645	-0.411 (0.681)	3.54±0.464	-1.021 (0.308)	2.93±0.627	-0.512 (0.609)
No	2.83±0.518		2.83±0.639		3.61±0.449		2.98±0.685	
Documentation of child abuse								
Yes	2.94±0.719	0.565 (0.572)	2.90±0.445	0.303 (0.762)	3.54±0.258	-0.312 (0.755)	3.04±0.713	0.223 (0.824)
No	2.82±0.523		2.82±0.642		3.60±0.453		2.98±0.677	
Concern for child abuse victim								
Yes	2.94±0.492	3.295 (0.001)	2.93±0.621	2.284 (0.023)	3.64±0.409	1.315 (0.189)	3.07±0.609	2.007 (0.046)
No	2.76±0.533		2.77±0.643		3.58±0.472		2.93±0.706	

#### 4. 아동학대 하위영역 별 관련요인

앞선 이변량 분석 결과 하위영역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인 성별,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여부,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여부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학년 중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진제거(제거 확률  $p=0.10$ )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하위영역 인식에 관련있는 변수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최종모형은 종속변수의 변량을 미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R^2 : 2.2\sim 2.8\%$ ),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 외에도 하위영역 인식과 관련 있는 변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설명력이 미미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여부였다(Table 4). 즉,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인식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평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여부,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여부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을수록,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을 가질수록 방임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특별히 관련 있는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값에 관계없이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여부와 학년, 성별이었다.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이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 심리적 학대를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 특성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아동학대를 주제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 논의가 쉽지 않아 기존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및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심도가 85.4%이었는데,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일본의 간호대학생은 96.6%로 더욱 높았다[10].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수와 교육을 받은 경험이 19.7%로 일본간호대학생 58.7%보다 훨씬 낮았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14.3%가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비해 일본 간호대학생은 80.6%가 아동학대방지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1.6%만이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본인이나 친구가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4%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를 의심했을 때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연락한 적은 10.1%, 지금까지 아동학대사례에 접한 적이 있는 학생은 14.0%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의 간호대학생은 지식이나 수업경험, 아동학대 사례에 접한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한국보다 일찍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 등에 접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 및 연수 경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인식은 4학년이 되면서 다소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교과과정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간호학과 교과과정의 교육목표를 연구한 Kim 등 [21]이 ‘인간의 생명과 인격 존중, 윤리적 규범과 법규 준수’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 간호교육과정은 국내 48개 4년제 중 17개(35%)뿐이어서, 아동학대가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간호학과 국가시험 중

Table 4. Regression on child abuse by sub-domain (n=370)

Independent variable	Physical abuse		Neglect		Sexual abuse		Mental abuse	
	Initial model beta (p)	Final model beta (p)	Initial model beta (p)	Final model beta (p)	Initial model beta (p)	Final model beta (p)	Initial model beta (p)	Final model beta (p)
Sex(Male)	-0.027 (0.632)	-	0.113 (0.041)	0.121 (0.020)	0.068 (0.222)	-	0.100 (0.073)	0.092 (0.095)
Year(4th year)	-0.037 (0.482)	-	-0.010 (0.852)	-	0.045 (0.397)	-	0.025 (0.632)	-
Age in years	0.029 (0.601)	-	0.022 (0.687)	-	-0.004 (0.939)	-	-0.101 (0.070)	-0.093 (0.089)
Awareness of child abuse (Yes)	0.059 (0.272)	-	0.105 (0.050)	0.105 (0.047)	0.063 (0.247)	-	0.050 (0.357)	-
Concern for child abuse victim (Yes)	0.156 (0.003)	0.169 (0.001)	0.104 (0.050)	0.104 (0.049)	0.057 (0.291)	-	0.100 (0.062)	0.112 (0.031)
R <sup>2</sup>	0.034	0.029	0.024	0.028	0.015	0.000	0.026	0.022
F (p)	2.555 (0.027)	10.854 (0.001)	2.784 (0.018)	4.603 (0.004)	1.081 (0.371)	-	1.906 (0.093)	2.780 (0.041)

Final model was selected by backward elimination (p=0.10).



보건료법규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3.02점으로, ‘가꿈’이라도 일어나면 학대라고 생각하였는데,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일본 간호대학생의 2.91±0.50 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10]. 조사도구는 다르지만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을 5점 척도로 본 Kim의 연구[1]에서는 평균 4.0점으로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 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문항의 차이, 척도의 차이 뿐 아니라 지역 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번이라도 ‘하면’ 학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22]에서는 방임이 1주일에 2-3회 이상 자주 일어나는 경우 학대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신체학대, 정신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는 1달에 1-3회 가량 일어나는 경우 학대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대학생의 연구[23]에서는 아동학대 인식이 4점 척도의 3.22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의 연구[24]에서는 5점 척도의 4.52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학과가 간호학과 외에 초등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특성에서는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높았는데, Park의 연구[24]에서는 성별, 학과, 교육여부, 신고의무자 인식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Moon의 연구[23]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특수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도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다[15]. 일반대학생의 전공학과를 아동학대 신고의무 학과와 비신고의무 학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학과인 간호학과 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아[23], 결론적으로 성별, 학과, 교육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과에 따른 차이를 논의할 수 없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 특성 간의 차이를 본 연구[7]에

서는 아동학대 인식은 학생의 관심도( $p < 0.05$ )에 의한 차이만 나타났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서도 관련 특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사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24]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를 고발/보고하는데 관심이 없어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래의 건강증진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물사용과 학대에 대해 교육하고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미래 간호사로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학대, 방임 순으로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의 유형별 인식 정도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3.63±0.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 순이었으며, 방임에 대한 인식은 1.24±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23]. 하지만, Park의 연구[25]에서는 방임은 가장 낮지만 신체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적 학대문항이 없어 조사도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발생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소를 통해 접수된 9,309건 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7,354건으로 79.0%를 차지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9.4%로 가장 많았고, 방임(35.6%), 정신학대(13.7%), 신체학대(5.9%), 성적 학대(4.8%), 유기(0.6%)의 순으로 나타났다[1]. 미국 학교상담사의 1년간의 아동학대 보고조사 결과[26]에서 보면 전체 보고 건수의 68.0%가 학대로 보이며, 그 가운데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방임, 정서적 학대 순이었다. 또한 Kim과 Cho의

연구[19]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아동학대 심각성은 성적 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 방임 순이었다. 또한 부모 간 폭력경험과 아동기 학대경험은 높은 상관성이 있었으며 아동기 폭력경험과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고의무가가 되어야 할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으로 인해 민감성이 저하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심도 깊은 자기 성찰과 전문직 역할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아동학대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성적 학대에 대한 것으로서 아무 변수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대상자의 특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성별, 학년, 연령이나 평소 관심,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 등에 관계없이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신체학대나 방임, 심리적 학대에 모두 관련이 있는 변수는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 여부로서, Kim과 Park의 연구[7]와 일치한다. 방임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이 더 높았고,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인식도 남학생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의 연구[24]와는 일치하나 Moon의 연구[23]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간호대학생으로서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학대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학대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으며[18],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적은 결손 빈곤 가정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서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잠재성이 심각할 만큼 증가되어 있었다[27]. 따라서 경제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예방과 관련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을 제언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아동과 가족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으로서, 조기발견과 신고 및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임상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 청소년

년들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간호사로서 활동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예방활동과 발견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10].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는 아동학대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고 아동학대 신고의지도 매우 높아, 이들에게 아동학대의 신고의무, 신고 요령 등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28]. 간호사는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인권 옹호자로서 대상자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29] 따라서 대상자의 교육중재에 대한 역할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WHO[2]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다면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데,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은 가정방문, 부모교육, 양육기술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진단은 어렵지만 간호사는 전문성, 교육, 상담 및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0].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 요 약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2개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 측정도구를 번안한 44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조사자에 의해 실시한 결과 3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관련요인 특성 별 아동학대 인식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관련 요인 파악은 후진제거방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경험도 거의 전무하였다. 교육이나 훈련경험, 법에 대한 인지도는 고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간호학에서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은 3.01점으로 도구에 포함된 행동을 ‘가끔’이라도 하면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가 그 다음이었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의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신고의무자가 될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Kim HM.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011;8(2):95-113 (Korean)
2. World Health Organization. Child Abuse prevention Guidelin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10, pp.8-12
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e and Health Services(USDHHS). Child welfare Statistics. USA, 2005, pp.25-28
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실태조사-방임아동을 중심으로-.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pp.1-10
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09;152: 123-125 (Korean)
6. Huh N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3;53:209-230 (Korean)
7. Kim JS & Park, G.S.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5;11(2):211-220 (Korean)
8. Kim TI. Child abuse. *J of Nursing Query* 2007;6(1): 51-77 (Korean)
9. Kim SA.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997;6(1):192-201 (Korean)
10. 小笹(Ozasa)美子. 保健師のごどもの虐待にかかわる頻度と対応に関する研究. ぐども未来財團, Japan, 2011, pp.20-48
11. Kim CK, Lee JO, Song YJ. A study of child abuse through the newspaper and research papers. *The J of Play Therapy* 2009;15(2): 97-109 (Korean)
12. Chong CO. Day care teachers' awareness of child abus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5;30:298-325 (Korean)
13. Choi KI.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intentions to report a child abus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1;13(1):27-46 (Korean)
14. Kang JS, Chung YS. Survey of child abuse and awareness of teachers about child abuse in Bucheon city. *Social Welfare Review* 2002;7:145-166 (Korean)
15. Kim YH. A study of special school teachers' awareness on child abuse.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2006;48:1-13 (Korean)
16. Chung WJ.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clusion of intention in reporting of child abuse, -focus on day care center teach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09;27: 133-152 (Korean)
17. Park EM. A study on the educare teachers' perception and responses to child abuse. *J of Welfare Adm.* 2010;26:119-138 (Korean)
18. Kim MJ. A study on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by social

- worker-focused on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dissertation]. Seoul, Ewha University, 2006 (Korean)
19. Kim EJ & Cho KM. A study on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buse victim and the perception about severity child abus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11;15(2): 97-109 (Korean)
  20. 법제처. 아동복지법. [cited 2012 Jun 5]. Available from : URL:<http://www.law.go.kr/main.html>
  21. Kin CN, Park JS, Lee KH, Park KM, Kwon YS, Koh HJ. Curriculums analysis on 4 years nursing college education in Korea. *Keimyung Nursing Science* 2004;8(1): 48-56 (Korean)
  22. Kim EK. Attitude survey on child abuse of nursing students. *Theses of Hyecheon College* 2002;47-53 (Korean)
  23. Moon JH.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of childhood and child abuse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09;12(2): 107-118 (Korean)
  24. Delia RM, Villela Bueno SM, Silva EC. Conceptions of nursing students on health promotion related to psychoactive substances. *Ra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008;16:627-633
  25. Park GH.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n child abuse of the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Gwang Ju, Honam University, 2005 (Korean)
  26. Bryant JK. School counselors and child abuse reporting: A national surve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009;12(5):1-11
  27. Ahn HY, Kim SJ, Ko JA. Child abuse in high-risk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6):775-783 (Korean)
  28. Kim YH, Yun EY, Lee NY. A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10(2):189-197 (Korean)
  29. Korean Nurse Association, Korean nurse ethics guideline. Seoul, 2007;3: 8 (Korean)
  30. Bjorn T, Britt B, Ygge B-M. Nurses' experience in clinical encounters with children experiencing abuse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8;17:2718-2724